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무용 작품
「중심잡기」에 관한 연구



HANSUNG
UNIVERSITY
2025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조 한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용

무용 작품
「중심잡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nce Work
「Keeping balance」



HANSUNG
UNIVERSITY

2025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조 한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용

무용 작품
「중심잡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nce Work
「Keeping balance」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조 한 진

조한진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5년 6월 일



심사위원장 박재홍 (인)

심사위원 김남용 (인)

심사위원 정석순 (인)

국 문 초 록

무용작품 「중심잡기」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조 한 진

본 연구는 유교 철학의 핵심 개념인 중용(中庸)을 현대무용 창작의 주제로 삼아, 이를 통해 현대인의 감정과 관계의 균형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현대 사회는 정보 과잉, 과도한 경쟁, 감정의 극단적 표출 등이 일상화된 혼란의 시대이며, 개인은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용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창작공연 「중심잡기」를 통해 이러한 혼돈의 흐름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삶의 의미를 모색하는 예술적 시도를 담았다.

「중심잡기」는 인간관계에서의 과(過)와 불급(不及)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의 탐구이다. 작품은 총 네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돈의 세계에서 출발해 점차 중용을 깨닫고 균형의 춤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사례분석, 안무 실험을 통해 철학적 개념을 신체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을 예술적으로 탐색하였다. 『중용』,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등 고전 철학서 및 현대 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 중용의 철

학적 함의를 해석하고, 이를 피나 바우쉬, 메르스 커닝햄, 오하드 나하린 등 현대무용 거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안무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무용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즉흥적인 움직임과 감정 표현을 실험하고, 중용의 철학이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무용이 단순한 신체 표현을 넘어 철학적 개념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술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중용이라는 고전 개념이 현대사회의 정서적 혼란과 과잉 속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예술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본 논문은 무용 창작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한다.



【주요어】 중용, 유교 철학, 균형, 감정 조절, 조화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4
2.1 유교철학의 중용 개념	4
2.2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덕 윤리	5
2.3 감정 조절과 자기 인식의 철학	7
2.4 예술과 무용에서의 균형 개념	8
III. 작품 개요	10
3.1 작품형식 및 구조	10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11
3.2.1 움직임 표현방법	11
3.2.2 의상 효과	13
3.2.3 조명 효과	15
3.2.4 음악 효과	16
3.2.5 소품 효과	17
IV. 작품 분석	19
4.1 1장: 혼돈의 시작	21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21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2
4.1.3 음악	23
4.1.4 조명	23
4.2 2장: 중용의 탐색	26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26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7
4.2.3 음악	28
4.2.4 조명	28

4.3 3장: 증용의 깨달음	31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31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1
4.3.3 음악	32
4.3.4 조명	33
4.4 4장: 균형의 춤	35
4.4.1 내용 및 안무 의도	35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5
4.4.3 음악	36
4.4.4 조명	37
V. 결 론	39
참 고 문 헌	41
부 록	42
ABSTRACT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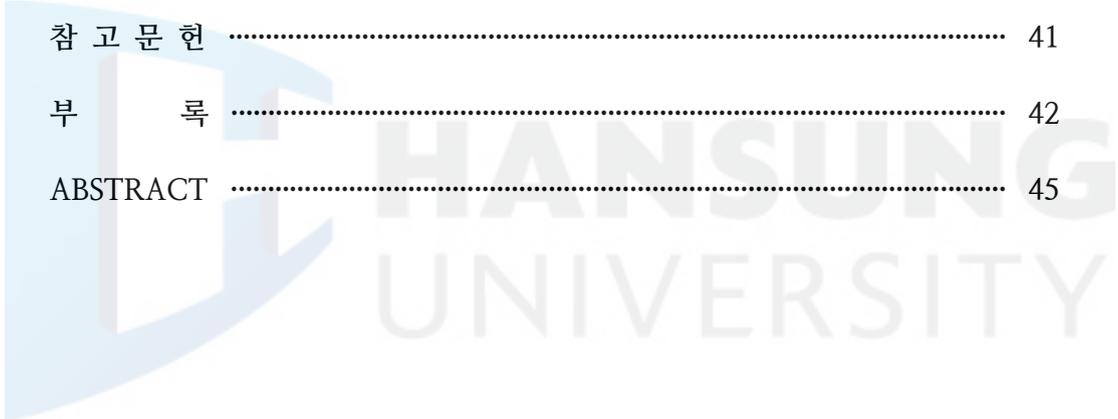


표 목 차

[표 3-1] 장면의 특징	10
[표 3-2] 움직임 표현 방법	13
[표 3-3] 장면별 조명 연출 분석	15
[표 4-1] 1장 동선 및 조명	25
[표 4-2] 2장 동선 및 조명	30
[표 4-3] 3장 동선 및 조명	34
[표 4-4] 4장 동선 및 조명	38



사 진 목 차

[사진 3-1] 무용수A	14
[사진 3-2] 무용수B	14
[사진 3-3] 무용수C	14
[사진 3-4] 소품 긴 막대기	17
[사진 4-1] 막대기를 통한 중심 회복 시도	22
[사진 4-2] 막대기 위를 디더보는 불안한 움직임	22
[사진 4-3] 집중 스포트 조명	24
[사진 4-4] 강렬한 색의 대비 조명	24
[사진 4-5] 서로를 붙잡고 균형을 맞추는 장면	28
[사진 4-6]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의탁하는 장면	28
[사진 4-7] 중심축으로 끌어당기는 장면	29
[사진 4-8] 신뢰와 균형의 상징성을 시각화한 장면	29
[사진 4-9] 삼각형 구도로 중심을 이루는 장면	32
[사진 4-10] 신뢰와 협력의 정점을 표현한 장면	32
[사진 4-11] 높낮이로 균형을 이루는 장면	34
[사진 4-12] 무용수가 낮은 자세에서 조명을 받으며 감정적으로 수렴되는 장면	34
[사진 4-13] 평온한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	36
[사진 4-14] 중심은 관계 속에서 함께 유지되는 것을 표현	36
[사진 4-15] 몸의 움직임이 빛과의 상호작용	38
[사진 4-16] 정서를 드러내는 조형적 요소	38

I. 서론

본 논문은 공자의 ‘중용’을 주제로 한 창작 무용 작품 「중심잡기」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와 감정적 자극이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개인은 SNS, 미디어, 기술의 속도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노출되며, 자신을 증명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환경은 인간 내면의 균형을 붕괴시키며, 감정의 과잉 표출 또는 억제를 낳고, 인간관계마저 파편화된 양상을 띠게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정체성의 본질적 과제가 된다.

효율성으로 치환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오히려 개인의 내면을 소진시키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감정의 소비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로 인해 많은 현대인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 감정을 억제하거나 반대로 과장된 감정으로 자신을 방어한다. 이러한 균형 잃은 정서 상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 상실로 이어진다. 특히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은 관계와 감정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우울, 불안, 자기 상실 등의 심리적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심리적 배경은 동양 철학이 지닌 절제와 조화의 미덕을 다시금 조명하게 한다. 유교 철학의 핵심 개념인 중용(中庸)은 단순히 중간만을 지향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체가 내면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관계 속에서 적절함을 실현하는 고도의 감정 조절과 태도의 미학이다. 중용은 극단을 배제한 안정된 판단, 도덕적 중심, 그리고 관계적 조화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철학적 틀을 제공한다. 이는 현대인이 마주한 정서적, 사회적 과잉의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해석과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유효한 개념이다. 특히 중용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천 철학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단순히 동양 고전 철학의 재조명에 그치지 않고, 무용이라는 예술 장르가 인간 내면의 철학적 사유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주목하게 한다. 무용은 언어를 대신하여 신체를 도구로 사용하는 예술이며, 따라서 철학적 개념이나 정서, 사회적 메시지를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장르이다. 특히 현대무용은 비언어적 소통의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철학적 깊이와 실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용수는 신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내면의 사유를 외적으로 표현하며, 안무가는 움직임의 구조와 흐름을 통해 삶과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무용은 ‘움직이는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중심잡기」는 바로 이 무용의 특성과 중용이라는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감정의 과잉과 결핍이 반복되는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잡아가려는 인간의 여정은, 철학적 메시지이자 무용수의 신체를 통해 전달되는 생생한 예술적 서사로 구성된다. 작품 안에서는 신체의 균형과 중심뿐만 아니라, 감정의 흐름과 표현, 타인과의 관계적 거리까지도 모두 '균형'이라는 키워드로 해석된다. 이는 무용이 가진 신체적 미학과 철학적 깊이를 동시에 보여주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작품은 중용의 철학을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살아 움직이는 예술 언어로 확장해 보려는 시도다. 안무 과정에서는 철학적 개념의 물리적 구현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무용수 개인의 감정, 움직임, 호흡의 조절이 예술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소품, 음악, 조명, 의상 등의 무대 요소 또한 모두 중용의 개념을 보완하며 통합적으로 기능하였다. 이는 예술이 철학을 시각화할 수 있는 매체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적 사례이다.

참고로, 유교의 중용 개념을 바탕으로 한 무용 창작 사례는 국내에서는 드물게 시도되어 왔다. 김미숙의 작품 「화(和)의 공간」은 '조화와 균형'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움직임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동양 철학이 무용이라는 예술 형식에서 어떻게 시각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례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박은영의 「중용의 선율」은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을 융합하여 감정의 절제와 내면의 조화를 표현한 작품이며, 이정민의 「균형의 숨」은 도시인의 정서적 혼란과 긴장 속에서 중심을 회복하려는 여정을 무용수의 움직임으로 풀어낸 창작물이다. 이들 작품은 중

용이라는 철학이 무용을 통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철학과 예술의 융합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작품 「중심잡기」는 이러한 기존의 시도들을 참고하면서도, ‘감정의 중심’이라는 보다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주제를 중심축으로 설정하였다. 즉, 고전 철학의 추상적 개념을 무용수의 움직임과 감정의 흐름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중용을 보다 실천적이고 정서적인 언어로 재해석하였다. 이는 기존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며, 무용의 언어가 철학적 주제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실험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예술 창작의 결과물로서의 작품뿐 아니라, 그 과정을 철학적, 미학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연구로서의 의의도 가진다. 「중심잡기」를 통해 중용이라는 고전 철학이 어떻게 예술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현대인이 직면한 정체성과 감정의 균형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용이 철학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매체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하며, 예술 창작이 갖는 사회적 역할과 철학적 의미를 동시에 고찰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유교 철학의 중용 개념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中庸)은 인간의 삶과 윤리에 있어 균형과 절제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덕목 중 하나이다. 중용이라는 개념은 『논어』, 『중용』, 『맹자』 등 고전 유학의 핵심 경전에서 강조되며, 공자는 "군자는 중용을 실천한다(君子中庸)"고 하여 이를 군자의 가장 본질적인 태도로 규정하였다. 『중용』에서는 "중용은 천하의 큰 근본이며 도의 근원이다(中庸者天下之大本也 而道之所由也)"라고 하여 중용이 단순한 중간이나 타협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아우르는 도덕적, 존재론적 원리임을 드러낸다.¹⁾

중용은 사전적으로 '중(中)'은 가운데, '용(庸)'은 일상·일정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항상 적절함을 유지하는 상태'로 해석된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감정과 행위를 절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나침(過)과 모자람(不及) 사이의 적정선을 실현하는 도덕적 지혜이다. 정주학파의 정이(程頤)와 주희(朱熹)는 중용을 "기울어지지 않음(不偏)"과 "변하지 않음(不易)"의 통합 개념으로 보고, 인간의 심성 안에서 실현 가능한 성실(誠)의 경지와 연결 지었다.²⁾ 즉 중용은 단순히 외부 규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기 조절력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윤리로 보아야 한다.

특히 중용은 관계 중심의 도덕으로서, 개인과 타인, 나와 공동체 사이에서 감정과 표현을 조절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맹자』에서는 중용을 '시의적절함'으로 해석하며, 각기 다른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한다.³⁾ 이는 고정된 도리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도덕 실천이며, 인간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조율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1) 『중용』, 김학주 역주, 을유문화사, 2008, p.14.

2) 주희, 『중용장구집주』, 정인재 역, 예문서원, 2011, p.65.

3) 『맹자』, 신동준 역주, 을유문화사, 2007, p.222.

오늘날 현대 사회는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정보 과잉, 감정의 극단화, 관계의 소외와 같은 현상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내면적 균형 상실로 이어지곤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중용의 철학은 개인이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고, 상황에 맞는 판단과 조화를 실현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되찾는데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성찰과 관계 조율이라는 중용의 핵심 가치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타인과의 갈등이 빈번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유효한 윤리적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교의 중용 개념은 무용이라는 예술에서도 구현 가능하다. 무용은 신체의 중심을 유지하며, 에너지의 흐름과 감정의 진폭을 조절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무용수는 신체와 감정, 에너지를 조율하여 표현의 절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중용의 미덕과 깊이 맞닿아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작품 「중심잡기」는 바로 이 유교적 중용의 철학을 신체 언어로 변환하여 균형과 절제, 조화를 무대 위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속의 안무는 걱정과 고요함, 빠름과 느림, 정적인 중심과 동적인 흐름 사이를 넘나들며 중용의 원리를 예술적으로 해석한다.

2.2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덕 윤리

서양 윤리학에서도 ‘중용’은 핵심적인 도덕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 이론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덕(arete)을 과도함(過)과 결핍(不及) 사이의 ‘중간 상태(mesotēs)’라고 정의한다. 그는 “덕은 정념과 행위에 있어 중용이며, 그것은 이성에 따라 올바른 규칙으로 결정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도덕적 행위란 무조건적인 기준이 아닌, 상황에 따라 이성적으로 판단된 균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⁴⁾

예를 들어, ‘용기’라는 덕은 무모함이라는 과도함과 비겁함이라는 결핍 사이에 존재하며, ‘절제’는 방탕함과 무감각 사이의 적절한 상태로 간주된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한 수학적 평균이 아닌, 개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판단되는

4)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천병희 역, 숲, 2009, p.91.

주관적이며 실천적인 중간점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관계적 중용(relative mean)”이라 부르며,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중간’은 다르다고 본다.⁵⁾

이러한 관점은 유교의 중용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두 전통 모두 절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도덕은 고정된 규율이 아니라 맥락과 상황에 따라 조율되는 실천적 지혜라고 본다. 다만, 유교의 중용이 사회적 조화와 관계의 도덕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품성과 인격 형성을 중심에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철학 모두 ‘지나침’과 ‘부족함’을 경계하고, 적절함이라는 미덕을 실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특히 현대 사회는 다원적 가치와 윤리적 혼란 속에서 개인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상실하기 쉬운 시대이다. 무조건적인 극단이나 단편적 가치 판단이 범람하는 현실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중용의 개념은 개인의 윤리적 성숙과 사회적 조화의 기준으로 다시금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성적 판단과 개인의 품성 수련을 강조하는 덕 윤리는, 감정적 반응에 의해 움직이기 쉬운 현대인에게 절제와 자제, 그리고 삶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무용이라는 예술 장르에서도 이와 같은 중용의 원리는 유효하게 작용한다. 안무자는 동작의 크기, 속도, 리듬, 강약 등 수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가장 조화로운 구성을 찾아야 하며, 이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성에 따른 적절한 중간’의 구현에 가깝다. 또한 무용수는 무대 위에서 감정의 표현과 에너지의 배분을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조율해야 하며, 이는 신체적·정신적 훈련을 통한 덕의 습득 과정과도 유사하다. 본 연구의 작품 「중심잡기」는 이러한 덕 윤리적 중용 개념을 움직임의 구조와 무용수의 태도에 적용하여, 감정과 에너지의 균형을 통해 철학적 메시지를 구현하려 하였다.

5) 김상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개념과 윤리학」, 『철학연구』 제100집, 2013, p.88.

2.3 감정 조절과 자기 인식의 철학

감정 조절은 인간 내면의 안정과 대인관계의 조화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철학뿐 아니라 심리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유교 철학에서 감정의 절제는 단순히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도덕적 태도이다. 맹자는 "성(性)은 선하다"고 하며,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는 인간의 도덕적 가능성을 강조하였다.⁶⁾ 조광제는 『유학과 마음공부』에서 “중용은 인간의 감정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조절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는 자기 인식과 성찰의 반복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말한다.⁷⁾ 즉 감정 조절은 자아 인식의 깊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훈련이며, 이는 곧 도덕적 주체로서의 성숙함으로 이어진다.

또한 현대 심리학에서는 감정 조절 능력을 정서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핵심 요소로 정의하며, 이 능력이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김경일은 정서 지능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며, 이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통합적 능력”이라고 설명한다.⁸⁾ 이는 곧 유교에서 말하는 감정의 절제와 맥을 같이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윤리적 태도임을 시사한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의 과잉 노출과 즉각적인 반응이 일상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SNS를 통한 감정 표출, 갈등의 극대화, 공감 능력의 결여 등은 감정 조절 능력의 저하를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이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감정의 흐름을 자각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더욱 절실하며, 이는 인간의 품격과 공동체적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덕목이 된다.

무용에서 감정 조절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움직임과 신체 감각을 통해 감정의 밀도와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실천적 행위이다. 무용수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신체로 외현화하면서도, 그것이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를 고려

6) 『맹자』, 신동준 역주, 을유문화사, 2007, p.84.

7) 조광제, 『유학과 마음공부』, 사계절, 2006, p.109.

8) 김경일, 『지혜의 심리학』, 진성북스, 2022, p.157.

하며 동작을 구성한다. 이는 감정의 즉각적 표출이 아닌, 자아 인식을 통한 절제된 표현이며, 철학적 사유가 개입된 예술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작품 「중심잡기」는 감정 조절을 통해 균형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내면 여정을 무대 위에서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작품 전반에 걸쳐 감정의 과잉과 억제, 고조와 이완이 교차되며, 무용수는 신체를 통해 감정의 중심을 잡으려는 반복적 시도를 수행한다. 이는 감정이 단지 표현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절제와 조화를 통해 구현되어야 할 철학적 주제임을 강조한다.

2.4 예술과 무용에서의 균형 개념

예술에서 ‘균형’은 단순한 비례나 대칭의 문제가 아닌, 내적 감정과 외적 형태, 즉흥성과 구성미, 정서와 의미의 조화로운 통합을 의미한다. 김미숙은 “무용에서 균형은 움직임의 조화와 긴장의 배분, 그리고 감정의 흐름을 통해 형성되는 예술적 질서”라고 하며, 이는 무용수의 감각적 자각과 내면 세계가 외부로 구현되는 통로라고 설명한다.⁹⁾

무용에서는 신체 중심의 유지뿐 아니라, 공간 속에서의 방향성, 움직임의 흐름, 감정 표현의 강약이 복합적으로 조율되며 균형의 미학이 형성된다. 양선아는 “무용수의 중심 감각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감각에 대한 지속적 인식의 결과이며, 이는 감정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⁰⁾

현대 사회는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경향 속에서 조화나 절제보다 과잉된 표현과 자극에 노출되기 쉽다. 무용은 이러한 시대 흐름에 대응하여, 감각적 과잉에서 벗어나 신체 감각과 감정의 균형을 회복하고 내적 통합을 성찰할 수 있는 예술적 대안을 제시한다. 균형의 미학은 단지 미적 요소가 아니라, 자기 인식과 존재의 조화를 탐구하는 철학적 자세로도 볼 수 있다.

김혜운의 작품 『내면의 거리』는 정서적 긴장과 완화를 교차시키는 동작 구성, 조명과 소품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감정적 균형과 신체의 중심감을 표현하였다.¹¹⁾ 이는 단지 미적 완성도를 넘어서, 감정과 철학의 조화를 신체적

9) 김미숙, 『무용미학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2013, p.102.

10) 양선아, 「현대무용에서의 신체 균형의 미학」, 『한국무용연구』 제25집, 2020, p.47.

으로 구현한 창작 사례로 평가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중심잡기」 역시 균형이라는 개념을 신체 움직임, 음악, 소품 사용, 감정 흐름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유교의 중용 개념을 현대적 감정 표현과 연결 지은 무대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즉 무용에서의 균형은 도덕적 태도이자 예술적 기법이며, 신체와 정신, 감정과 사유가 만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구현되는 통합적 미학이다.



11) 김혜윤, 『내면의 거리』 공연 프로그램 노트, 2022.

Ⅲ. 작품 개요

3.1 작품형식 및 구조

작품 「중심잡기」는 유교 철학의 핵심 개념인 ‘중용(中庸)’을 주제로 삼아, 현대사회의 감정 과잉, 관계의 불균형, 정보의 과포화 속에서 중심을 잃어가는 개인의 정체성과 내면 회복의 과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업이다. 이 작품은 총 4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면은 인간 내면의 감정 흐름, 신체 균형, 관계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중용의 철학을 단계적으로 탐색한다.

〈표 3-1〉로 각 장면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장면의 특징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시간
1장	혼돈의 시작	양극단의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다.	5분
2장	중용의 탐색	무용수들이 불안함 속에서 중심을 찾으려 함.	7분
3장	중용의 깨달음	무용수들이 점차 중심을 잡아가며 균형을 이룸.	7분
4장	균형의 춤	무용수들이 균형을 이루며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끝남.	1분

작품은 무용수 3인이 출연하는 군무 형식으로 구성되며, 긴 막대기라는 상징적 소품을 활용하여 물리적 중심과 정서적 중심의 이중적 의미를 시각화한다. 음악은 전자 사운드와 자연음, 호흡의 리듬 등을 혼합하여 감정 상태와 움직임의 변화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조명은 각 장면의 정서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구성으로, 빠른 플래시에서부터 은은한 색조 변화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며 무용수의 감정선을 강조한다.

「중심잡기」는 단순한 움직임의 나열을 넘어서서, 감정과 철학의 통합적 구조로 기획되었으며, 무용수의 즉흥적 움직임과 연습 과정 속 감정 탐색을 반영하여 안무가 완성되었다. 이는 중용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 감각과 몸의 통찰을 요구하는 철학이라는 점을 공연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3.2.1 움직임의 표현 방법

「중심잡기」에서 안무자는 “중심을 잡는다”는 개념을 단순한 신체 균형의 기술적 표현을 넘어, 감정의 균형, 관계 속 중심성, 존재의 안정감이라는 철학적 주제로 확장시켜 안무를 구성하였다. 중심을 잃고 다시 되찾는 동작은 무용수의 신체와 감정을 통하여 반복적이고 상징적으로 제시된다.

안무 구성의 핵심은 막대기 소품을 활용한 중심 감각의 실험이다. 무용수들은 긴 막대기를 손가락, 팔꿈치, 어깨, 머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올려놓거나 바닥에 세워놓은 채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막대기는 외부의 힘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도구로, 인간 내면의 불안정성과 감정의 기복을 시각화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무용수는 이러한 막대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을 회복하고자 끊임없이 움직임을 조율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반복성과 변주: 중심을 잡는 시도는 반복되며, 각 반복에서 속도와 강도, 동

작의 방향성이 달라짐으로써 감정의 흐름과 혼돈의 단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불균형의 활용: 의도적으로 중심이 무너지는 장면을 삽입하여, 균형이란 단순히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조정되는 상태임을 표현하였다.

호흡과 연결된 움직임: 무용수의 호흡은 동작의 리듬을 형성하며, 내쉬고 들이마시는 호흡의 깊이에 따라 움직임의 크기와 속도가 조율된다. 이는 감정 조절과 자기 인식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내면화된 리듬으로 구체화한다.

공간을 활용한 이동: 무용수는 막대기를 중심으로 원형 또는 직선의 궤적을 따라 이동하며, 이는 중심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으로 인간의 내적 순환과 회복을 상징한다.

관계적 거리의 변화: 세 명의 무용수는 서로의 거리감을 변화시키며,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움직임을 통해 개인과 타인, 나와 공동체 사이의 균형 문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구성은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중용이 단순히 이념적 추상이 아니라, 무용이라는 신체 예술 속에서 구체적이고 체감 가능한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과 변형, 시도와 실패, 다시 균형을 잡는 여정은 무용수의 신체 안에서 철학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표 3-2. 움직임 표현 방법

움직임	중심 표현	상징	표현목적
막대기를 놓치고 다시 붙잡기,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동작	중심을 상실한 상태를 반복적으로 시도함	막대기, 불규칙한 호흡	혼란과 불균형, 중심 상실의 감 정적 표현
막대기 세우기, 회전 동작, 느린 무게 이동	중심을 잡으려는 시도와 실패의 교차	막대기, 바닥 지점, 시선의 분산	긴장과 불안 속 균형을 찾으려는 내적 갈등
막대기와 함께 걷기, 호흡과 함께하는 균형 동작	중심을 유지하며 움직이는 조화	천천히 바뀌는 조명, 규칙적인 음악 리듬	자기 조절의 가 능성과 감정 조 화의 상태
유기적 군무, 막대기를 매개로 한 동시성	중심을 완전히 통합한 상태	균형 잡힌 조명, 느린 템포의 음악	중용의 구현, 관 계 속에서의 균 형과 완성

3.2.2 의상 효과

작품 「중심잡기」의 의상은 전체적으로 절제된 색감과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바탕으로 하여, 유교 철학의 핵심인 절제·조화·균형이라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강화한다. 무용수들은 모두 연한 베이지, 아이보리, 크림톤 계열의 상의와 하의를 착용하며, 이 색상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따뜻함을 전달함으로써 내면의 안정성과 정서적 절제를 표현한다.

의상의 디자인은 느슨하고 통기성 있는 천을 사용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각 무용수의 개별 감정의 흐름이 의상 너머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상의의 소매 형태는 각 무용수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무용수 A는 민소매, 무용수 B는 반소매를 접은 형태, 무용수 C는 긴팔 셔츠를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매 길이의 차이는 개인의 감정 노출 정도와 내면의 개방성의 차이를 상징하며, 세 인물이 감정 조절과 중심 탐색의 단계에서 서로 다른 상태에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남성 무용수는 살짝 붉은 계열의 팬츠를 착용함으로써, 감정의 중심이 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동시에 중간 톤의 조화를 통해 타 무용수와 대비되면서도 이질감을 주지 않는다.

또한, 의상에는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기본적인 단추, 칼라, 허리선만을 강조하여 시각적 절제미를 극대화하였다. 이는 외형의 장식보다 내면의 흐름과 감정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는 현대무용의 특성과도 잘 부합된다. 의상의 질감은 조명에 따라 부드러운 음영을 형성하며, 각 장면의 정서적 분위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특히, 세 명의 무용수가 동일한 톤으로 의상을 맞추면서도 약간씩 다른 형태와 디테일(소매 길이, 단추, 재질)을 통해 개인의 차이와 집단 내 조화를 모두 드러내는 방식은, 작품이 표현하려는 ‘관계 속에서의 균형’이라는 주제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 사진 3-1 〉 무용수A



〈 사진 3-2 〉 무용수B



〈 사진 3-3 〉 무용수C

3.2.3 조명 효과

「중심잡기」의 조명 디자인은 각 장면의 정서적 흐름과 무용수의 내면 변화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주요 요소로 기능한다. 본 작품은 ‘중용’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다루고 있는 만큼, 조명 역시 극단을 배제한 조화로운 균형과 감정의 농도 변화를 섬세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출되었다.

조명의 색온도는 전체적으로 따뜻한 백색과 은은한 앰버톤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는 감정의 절제와 안정성을 상징한다. 각 장면은 조명의 강도, 방향, 색감의 변화에 따라 내거티브의 흐름을 따라간다.

또한, 조명은 막대기 소품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막대기 주변에 비추는 좁은 조명이 중심성의 상징으로 작용하며, 무용수가 중심을 잃거나 되찾는 장면에서는 조명의 갑작스러운 꺼짐과 켜짐이 심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조명 디자인은 무용수의 감정 표현과 밀착되어 있으며, 극적인 전환이 아닌 점진적이고 흐름을 따르는 변화를 통해 철학적 사유가 무대 위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중심잡기」가 단순한 극적 효과가 아니라, 감정과 중심, 조화의 원리를 끊임없이 되짚는 예술이라는 점을 조명 연출을 통해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3-3. 장면별 조명 연출 분석

장면	감정상태	색감	방향성	연출 효과
1장	불안, 혼란	차가운 백색, 간헐적 플래시	상향 및 교차 조명	중심 상실, 감정의 혼돈을 시각화
2장	내면 갈등, 긴장	중간 톤 앰버, 다소 어두운 조명	측면 조명 (개별 스포트)	개인 중심 탐색, 감정의 경계 표현
3장	안정, 연결	따뜻한 백색, 은은한 변화	중앙 집중광 → 전면 확장	정서 통합, 관계 조화의 시작
4장	평온, 통합	따뜻한 노란빛, 자연광 느낌	전면 확장 → 중앙 집중광	감정과 중심의 통일, 중용의 구현

3.2.4 음악 효과

「중심잡기」에서 사용된 음악은 두 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무용의 서사적 흐름과 감정의 변화를 지지하는 구조로 배치되었다. 음악은 작품 전체의 정서적 배경이자 움직임의 리듬과 에너지를 이끄는 감정적 내러티브로 기능하며, 중용이라는 철학 개념을 청각적으로 확장시킨다.

첫 번째 트랙은 작품의 1장에 사용되며, 「CLANN - Once Again」 음원을 사용하였다. 규칙한 리듬과 반복적인 전자 사운드, 낮은 음역대의 드론 음(droning sound), 그리고 간헐적인 노이즈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음악은 불안정한 중심과 감정의 혼란, 그리고 중심을 탐색하는 움직임과 강하게 연결되며, 무용수의 불안정한 신체 리듬과 호흡의 교란을 효과적으로 강조한다. 이 트랙은 특히 막대기를 놓치고 다시 잡으려는 동작, 개별적 탐색과 혼돈의 움직임과 맞물리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2장에서는 무음으로 시작해서 무용수들이 움직이며 나오는 호흡소리와 발소리 등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로 관객들이 무용수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두 번째 트랙은 작품의 3장과 4장에서 사용되며, 「Hammock - Universalis (Full Album, Official)」을 사용하였다. 보다 안정적인 박자감,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선율 구조, 그리고 자연의 소리(바람, 물결 등)의 질감이 더해져 있다. 이 음악은 감정의 정돈과 중심의 회복, 그리고 무용수 간의 조화로운 연결을 유도하며, 중용이 실현되는 과정을 청각적으로 전달한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는 음악의 리듬과 무용수의 움직임이 하나로 수렴되며, 중심이 내면화된 상태를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이 두 트랙은 대조적인 음향 질감을 기반으로 혼돈-탐색-회복-완성이라는 작품 구조에 맞게 유기적으로 배치되었으며, 단지 배경음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 정서적 리듬의 구조적 구성요소로서 적극적으로 작용하였다. 음악은 단순한 감정 유발을 넘어서,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감정의 중심을 잡는 예술적 여정’**을 소리로 완성시키는 중요한 매체였다.

3.2.5 소품 효과



〈 사진 3-4 〉

소품 긴 막대기

「중심잡기」에서 사용된 유일한 소품은 긴 막대기 하나이다. 이 막대기는 단순한 신체 보조 도구를 넘어, 중심의 상징, 내면의 균형, 감정 조절의 축으로서 작품 전반에 걸쳐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무용수는 이 막대기를 손이나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올려놓고 중심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반복한다. 때로는 막대기를 바닥에 세워 고정시키고 그 주위를 맴돌며, 때로는 막대기를 기울이거나 쓰러뜨리는 과정을 통해 의도적인 불균형과 회복의 반복을 시도한다. 이 과정은 인간이 중심을 잃고 다시 회복하려는 내면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상징화하며, 단순한 물체가 무용수의 감정 상태와 철학적 메시지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

막대기의 물성은 단순하고 투박한 나무질감으로, 장식 없는 외형을 통해 절제와 본질 회귀의 의미를 강화한다. 이는 중용이 지향하는 과도함을 피한 ‘적정성’과 ‘소박함’의 미학을 반영하며, 시각적으로도 무대 위에서 과도한 장치 없이도 중심이라는 개념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막대기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이 작품의 주제와 철학을 가장 응축된 형태로 시각화하는 상징적 오브제이며, ‘중심을 잡는다’는 물리적 동작을 넘어 존재론적 안정성과 감정 조절의 내면적 움직임을 드러내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IV. 작품 분석

1. 작품 의도

오늘날 현대사회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욕망,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은 인간, 감정의 폭발과 즉각적인 반응이 미덕이 되어버린 시대. 우리는 과잉과 결핍이 공존하는 이 세계에서 진정한 중심을 찾고 있는가?

이 작품은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中庸)’의 철학을 바탕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잃고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 SNS와 미디어가 만들어낸 감정적 극단, 끝없는 경쟁과 소비가 초래한 공허함.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공연은 처음 혼돈과 극단 속에서 출발하여 점차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지나침도 부족함도 아닌 "조화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

2. 작품 내용

「중심잡기」는 현대사회의 감정적 혼란과 관계의 불균형 속에서 ‘중용’의 철학을 몸으로 구현하고자 한 창작 무용 작품이다. 세 명의 무용수가 등장하는 이 작품은, 각 인물이 자신의 감정과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잃고 다시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을 4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무대 위에서의 중심은 단순한 물리적 균형이 아니라, 감정의 절제, 정체성의 회복, 타자와의 관계 조율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상징한다. 작품 전반에 사용되는 긴 막대기 소품은 이 중심의 의미를 시각화하는 핵심 장치로, 무용수는 이를 붙잡고, 놓치고, 다시 일으켜 세우며 중심을 향한 몸의 사유를 이어

간다.

「중심잡기」는 중심을 향한 반복적 시도와 감정의 조절, 관계적 거리의 탐색을 통해 ‘중용’이라는 철학이 현대인의 감정과 신체를 거쳐 무대 위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증명한 예술적 실천이다. 이 작품은 중심을 찾는 것이 곧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임을 몸으로 말하는 철학적 무용이다.

안무	조한진
출연	조한진, 성주현, 강민지
음악	1장 : CLANN - Once Again 2장 : 무음 3장 : Hammock - Universalis (Full Album, Official) 4장 : Hammock - Universalis (Full Album, Official)
소품	나무 막대기
작품시간	약 19분

4.1 1장: 혼돈의 시작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1장 「혼돈의 시작」은 작품 전체의 세계관을 설정하는 서사적 도입부로, 현대인이 감정적 혼란과 내면의 불균형 속에서 중심을 잃은 상태를 무대 위에 구현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무용수는 중심을 유지하려는 시도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그 실패를 감각적으로 반복하며 혼돈의 리듬 속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무용수는 긴 막대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에 올려놓거나 붙잡으려 하지만, 막대기는 쉽게 쓰러지고 중심은 흔들린다. 막대기는 단지 물리적 균형을 위한 도구가 아닌, 감정의 중심, 존재의 축, 인간 내면의 조율되지 않은 상태를 은유하는 상징물로 기능한다. 사진에서처럼 무릎을 꿇고 막대기를 머리와 어깨에 기대거나, 어둠 속에서 홀로 막대기와 마주하며 균형을 잡으려는 자세는 불완전한 자기 인식과 관계 단절 상태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이 장면의 안무는 전반적으로 불균형, 분절, 긴장, 실패라는 키워드로 구성되며, 다음의 요소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무용수는 막대기를 놓치고 다시 붙잡는 일련의 동작을 반복하며, 감정의 흐름과 에너지의 분산을 상징한다.

한쪽 발로 막대기 위에 중심을 두려다 넘어지거나, 손으로 붙잡은 막대기가 기울어져 균형을 잃는 순간들이 극적인 표현으로 활용된다.

무대의 공간은 무용수 간의 시선이 교차하지 않는 채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사회적 고립감을 반영한다.

조명은 대부분의 장면에서 강한 상향광 혹은 중앙 집중 스포트로 구성되며, 무용수의 그림자와 막대기의 실루엣이 강조된다. 이는 혼돈 속에서도 어딘가에 존재하는 '중심'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도, 그 중심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인간의 불완전함을 부각시킨다.

안무 의도는 이와 같이, 감정과 관계, 존재의 중심이 무너진 상태를 신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나는 지금 중심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질

문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중심잡기」의 모든 서사적 진행은 이 첫 장면에서의 중심 상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무용수가 막대기를 손끝 또는 바닥에 세워 중심을 잡으려는 모습을 반복하며, 감정적 긴장과 신체적 불균형을 동시에 시각화한다. 불안정한 자세와 함께 막대기의 기울기는 내면의 흔들림을 상징한다.

한쪽 발로 막대기 위를 살짝 디터 중심을 시도하는 장면은, 무용수가 의식적으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점의 긴장을 보여준다.



〈사진 4-1〉

막대기를 통한 중심 회복 시도



〈사진 4-2〉

막대기 위를 디터보는 불안한 움직임

4.1.3 음악

1장에서는 CLANN - Once Again 음악을 사용했다. 불규칙한 리듬과 반복적인 전자 사운드, 낮은 음역대의 드론 음(droning sound), 그리고 간헐적인 노이즈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음악은 불안정한 중심과 감정의 혼란, 그리고 중심을 탐색하는 움직임과 강하게 연결되며, 무용수의 불안정한 신체 리듬과 호흡의 교란을 효과적으로 강조한다. 이 트랙은 특히 막대기를 놓치고 다시 잡으려는 동작, 개별적 탐색과 혼돈의 움직임과 맞물리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4.1.4 조명

1장 「혼돈의 시작」의 조명 연출은 무대 위의 불균형과 감정적 혼란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명은 정서적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조성하는 연출 요소로 사용되며, 중심 상실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어둠과 빛의 대비, 방향성의 혼란, 다중색광의 혼재를 통해 관객에게 불안정한 인상을 전달한다.

무대는 전반적으로 낮은 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용수에게만 집중 스포트 조명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무대는 어두운 공간 속에 고립된 인물들을 부각시키는 구조를 띠며, 각 무용수는 마치 혼자만의 감정 속에 갇힌 듯한 인상을 준다. 특히 스포트 조명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막대기의 그림자가 바닥과 벽면에 길게 드리워지며 균형을 잃은 존재의 흔들림을 강조한다.

장면 중간에는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조명 강도와 색 대비 조명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붉은 조명과 청색 조명이 교차하면서 감정적 충돌과 방향의 분열을 표현하며, 이는 무용수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동작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때 무대는 공간적 일체감보다 감정적 분열감이 부각되는 구도로 전개된다.

또한 조명은 막대기 소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의 중심성과 혼돈을 강조한다. 무용수가 막대기를 잡으려 하거나 놓치는 순간마다 짧고 강한 플래

시성 조명이 삽입되어, 움직임의 실패 또는 전환이 관객에게 감각적으로 각인된다.

무대장치는 최소화되었으며, 막대기 외에는 별도의 장치 없이 조명 자체가 무대의 구조적 역할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본 작품의 핵심 주제인 ‘중용’이 외적 장식이 아닌 내면적 감각과 철학적 깊이로 구현되어야 함을 반영한 연출 의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장의 조명은 시각적 감정을 조형하는 동시에, 철학적 혼돈의 상태를 빛으로 번역하는 장치로 기능하며, 이후 장면에서 점차 정돈되고 안정화되는 조명 흐름의 대비를 위한 강력한 대비점을 마련한다.



〈사진 4-3〉
집중 스팟 조명



〈사진 4-4〉
강렬한 색의 대비 조명

표 4-1. 1장 동선 및 조명

장면	동선 및 조명	조명 플랜	소요 시간
		1. 센터의 집중 스팟 조명	
1장		2. 점차 넓어지는 조명	5분 30초
		3. 강렬한 색의 대비 조명	

4.2 2장: 중용의 탐색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2장 「중용의 탐색」은 1장에서 드러난 혼돈과 고립의 상태에서 벗어나, 무용수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관계 맺기를 시도하며 조화와 균형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이다. 이 장면의 핵심은 ‘완전한 중심’을 이미 이룬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균형을 찾아가려는 여정의 시도성에 있다. 안무는 무용수들의 접촉, 밀고 당기기, 끌어당김과 같은 동작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는 중용의 철학에서 강조하는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감각적 조율을 표현한다. 한 무용수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할 때, 다른 무용수가 그를 붙잡고 다시 세우려 하거나, 서로의 균형을 무게로 조절하며 동작을 맞추는 장면은 신체 간의 긴장과 협응을 통한 공동의 조화를 상징한다.

특히 사진에서 확인되듯이, 무용수 세 명이 서로를 단단히 붙잡은 채 서로를 지탱하거나 들어 올리는 장면은 단순한 신체 연결을 넘어선 정서적 신뢰와 관계의 복원을 보여준다. 무용수 한 명이 다른 무용수를 어깨에 태우고 이동하는 동작은 중심을 나누고 지탱하려는 의지를 상징하며, 이는 중용이 단지 개인의 절제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균형임을 무대 위에서 구현한다.

무용수의 이동 경로 역시 점차 불규칙에서 반복과 원형 구도로 정돈되며, 감정의 흐름도 혼란 → 탐색 → 협력 → 공명의 순환 구조로 발전한다. 이는 중용의 철학이 단번에 도달하는 상태가 아닌, 수행과 실천을 통해 다가가는 과정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장면에서 중심은 더 이상 개인의 신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신체를 통해 중심을 맞추고, 관계 안에서 중심을 공유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무용수들은 중용의 의미를 몸으로 ‘탐색’해 나간다. 이러한 탐색은 완성된 답이 아닌, 질문을 품은 움직임이며, 중용을 ‘발견해가는 상태’로 해석한 안무자의 시각이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장의 움직임은 상호작용을 통한 균형의 실험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중용’을 감각적으로 탐색하는 여정을 신체 언어로 구현한다. 무용수들은 서로를 붙잡고, 기댈 뿐 아니라 밀고 당기며 끊임없이 중심을 조율하고, 관계 안에서 균형을 ‘찾아가려는’ 시도를 반복한다. 이 움직임은 중용이 단지 개인의 절제가 아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조화의 윤리임을 보여준다.

안무는 세 무용수가 삼각형 구도를 이루며 각자의 불안정함을 다른 이의 신체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특히 서로의 손목이나 팔을 잡고 균형을 나누는 장면은 정서적 신뢰와 상호 의존의 메타포로 기능하며, 무용수들의 감정적 결속력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동작은 감정 표현의 강약을 넘어, 존재 그 자체를 지탱하고 책임지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무용수들의 신체 접촉은 감정적 신뢰의 은유로 기능하며, 서로를 붙잡고 균형을 맞추는 장면이 반복된다(그림 4-5). 한 명의 무게를 나머지 두 명이 나누어 지탱하는 구조는, 감정과 책임, 태도의 분산을 의미하는 동시에 ‘중용’의 실천이 집단적 감각임을 시사한다.

또한, 중심을 한 명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타인에게 이양하며 신체적으로 의탁하는 장면(그림 4-6)은 관계 속에서 중심이 순환한다는 구조적 상징을 구현한다. 이는 무용에서의 ‘중용’이 단순한 정적인 균형이 아니라, 역할의 교대와 감정의 흐름 속에서 생성되는 동적이고 협력적인 과정임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공간적으로도 세 무용수는 원형 혹은 삼각형 구조를 이루며 이동하는데, 이는 무대 위에 시각적 균형의 질서를 형성한다. 빠르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지지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련의 동작들은 삶의 불완전함 속에서 지속적으로 조율되는 중용의 감각을 전달한다.



(사진 4-5)

서로를 붙잡고 균형을 맞추는 장면



(사진 4-6)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의탁하는 장면

4.2.3 음악

2장에서는 무음으로 시작해서 무용수들이 움직이며 나오는 호흡소리와 발 소리 등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로 관객들이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더 집중 할 수 있게 만들었다.

4.2.4 조명

2장 「중용의 탐색」의 조명은 무용수들이 관계 속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된다. 이 장면에서는 1장의 날카롭고 분절된 조명 대비, 보다 따뜻하고 유기적인 흐름이 특징이며, 이는 중용의 개념이 감정의 절제와 균형을 향한 ‘과정’임을 강조한다.

조명은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앰버 계열의 다운라이트와 측면 확산광을 사용해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감정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반응한다. 공간을 가득 채우지 않고 일부만 비추는 제한적 조도는, 중심을 완전히 찾지 못한 상태의 불안전성과 함께, 인물 간 거리와 에너지의 이동을 더욱 뚜렷하게 만든다.

무용수들이 서로의 신체에 기대거나 밀어내며 중심을 조정하는 장면에서는, 조명이 수평에서 들어오는 측광(side light) 형태로 연출되어 움직임의 선

과 그림자가 무대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다. 이는 중심이 아직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감정의 흐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한 무용수가 팔을 뻗은 채 멀어지려는 다른 무용수를 붙잡는 장면에서는, 세피아 톤의 좁은 핀 조명이 그 순간의 긴장감을 극적으로 부각시킨다(그림 4-7). 두 무용수가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균형을 맞추는 구도에서는 두 인물을 함께 감싸는 둥근 조명이 상호 의존성과 감정적 신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그림 4-8).

또한, 조명이 비추는 면이 고정되지 않고 장면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무용수의 정서 변화와 중심 이동이 자연스럽게 관객의 시선에 포착된다. 이러한 조명 연출은 무대 장치를 최소화한 대신, 빛 자체가 무형의 무대 구조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장의 조명은 무용수 개개인을 비추기보다는, 그들 사이의 ‘관계성’과 ‘균형의 흐름’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이는 작품 전체의 주제인 ‘중심을 탐색하는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매개함으로써, 감정과 철학이 만나는 예술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사진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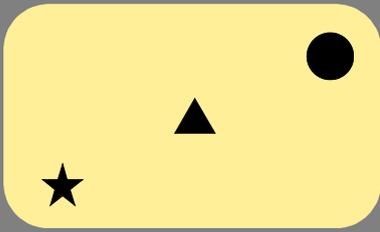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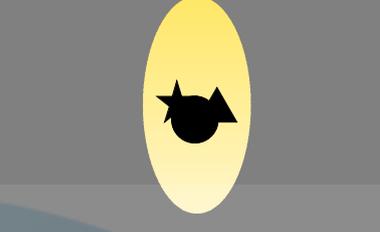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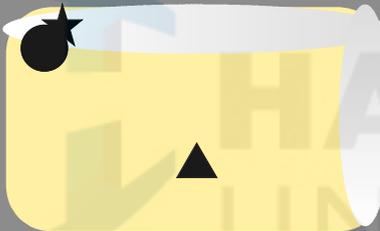
중심축으로 끌어당기는 장면



(사진 4-8)

신뢰와 균형의 상징성을 시각화한 장면

표 4-2. 2장 동선 및 조명

장면	동선 및 조명	조명 플랜	소요 시간
		<p>1. 부드러운 앰버개열 조명</p>	
2장		<p>2. 프론트 조명으로 제한적인 조도</p>	5분
		<p>3. 다시 넓어지는 조명과 벽에서 측광을 이용한 조명</p>	

4.3 3장: 중용의 깨달음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3장은 중용의 본질을 깨닫고, 혼돈과 갈등 속에서 조화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긴 막대기는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한 도구가 아닌, 무용수들 사이를 잇는 매개체로 전환된다. 등장인물 간의 관계는 힘겨운 갈등과 주도권 싸움이 아닌 상호 지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한 명의 무용수가 타 무용수의 어깨 위에 올라타거나, 세 명이 서로 기대어 막대기를 중심으로 조형적인 구도를 형성하는 장면은 개인의 중심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막대기를 매개로 한 중심 형성은 중용이 단지 ‘중간’이 아닌, 유기적 조화의 상태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 장의 안무는 상호 의존성과 물리적 균형을 바탕으로 한 동작들로 구성되며, 복잡하게 얽힌 관계가 점차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어 감정적 정화를 유도한다. 각 무용수의 움직임은 독립적으로도 존재하지만, 타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한다.

이는 곧, 유교적 중용이 말하는 ‘조화와 균형의 삶’이 고립된 개인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는 철학적 기반과 맞닿아 있다.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장은 ‘중용의 깨달음’을 주제로, 갈등과 혼돈의 과정을 지나 마침내 서로의 중심을 의지하며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몸으로 드러낸다. 이 장면의 움직임은 단순한 균형 유지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큰 안정과 조화를 찾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세 명의 무용수가 막대기를 중심으로 삼고 앉아있는 장면은 서로의 신체에 기대어 삼각형 구도를 이루며, 이는 인간 관계에서의 상호 의존적 균형을

상징한다(그림 4-9). 중심을 잡는 도구였던 막대기는 더 이상 혼자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셋 모두가 공유하며 기댈 수 있는 ‘공동의 기준’으로 전환된다.

한 무용수는 짝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또 다른 무용수는 막대기를 이용해 균형을 지지하는 모습은 신뢰와 협력의 정점을 표현한다(그림 4-10). 한 사람의 균형이 아니라 세 사람이 만든 하나의 균형 구조로, 중용의 이상적 상태가 움직임의 협력 속에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 철학적 메시지의 전달을 목표로 하며, 무용수 각자의 개성과 에너지가 하나의 호흡으로 조율되는 순간을 드러낸다. 중심은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거듭난다.



(사진 4-9)

삼각형 구도로 중심을 이루는 장면



(사진 4-10)

신뢰와 협력의 정점을 표현한 장면

4.3.3 음악

3장 「중용의 깨달음」에서는 작품 전반의 긴장감과 대비되는 정서적 안정과 감정의 수렴을 음악적으로 구현하였다. 이 트랙은 부드럽고 반복적인 음형, 은은한 자연음과 미세한 전자 질감, 그리고 일정한 리듬 구조를 통해 무용수의 움직임과 감정 흐름에 섬세하게 반응한다.

음악의 텍스처는 처음부터 과도한 변화 없이 잔잔한 파형처럼 흘러가며, 이는 무용수들이 서로의 중심을 인식하고 호흡을 맞추는 과정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강한 박자감이나 극적인 전환 없이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음향의 층은, 감정의 표출이 아닌 내면의 확장과 조율이라는 작품의 메시지를 강화한다.

특히 반복되는 배경 사운드 위로 숨소리와 같은 호흡성 효과음이 미세하게 더해지며, 무용수들의 몸과 마음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과정을 청각적으로 부각시킨다. 이는 감정의 진폭보다는 감정의 밀도와 방향성이 중요한 이 장면의 특징과도 일치한다.

음악은 무대 공간 전체에 공명감 있는 여백을 형성하며, 조명과 움직임, 호흡이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지도록 돕는다. 이처럼 2번 트랙은 작품에서 ‘깨달음’이라는 정서를 단순히 표현하는 것을 넘어, 무용수의 신체 리듬과 정서적 깨우침을 지지하는 구조적 사운드로 기능한다.

4.3.4 조명

3장 「중용의 깨달음」에서는 이전 장면의 불균형하고 긴장된 조명 구성을 벗어나, 안정성과 조화를 중심에 둔 조명 연출이 중심이 된다. 조명은 감정의 고조보다는 감정의 수렴과 정서적 평형을 유도하며, 중용이라는 철학적 상태가 몸과 공간, 감정과 관계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느낌을 부여한다.

전체 무대는 따뜻한 앰버 톤의 부드러운 확산광으로 채워진다. 과장된 명암 대비나 강한 스팟은 사라지고, 넓게 퍼지는 광원이 사용됨으로써 신체와 막대기, 공간 사이의 경계가 부드럽게 해체된다.

세 무용수가 서로 다른 높이에서 몸을 연결하며 균형을 이루는 순간으로, 부드러운 측면광이 전체 몸통에 고르게 퍼지면서 움직임과 조명이 긴장 없이 융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조명은 감정의 중심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내면에 스며든 상태임을 표현한다(그림 4-11).

무용수가 바닥 가까이 낮게 앉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조명을 받는 장면은, 조명의 높낮이와 밀도 역시 몸의 위치에 따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그림 4-12).

조명 자체가 공간의 깊이와 중심의 무게감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

한다. 세 무용수가 신체적 거리뿐 아니라 감정적 거리에서도 하나의 조화를 이루었음을 시각적으로 마무리한다.



(사진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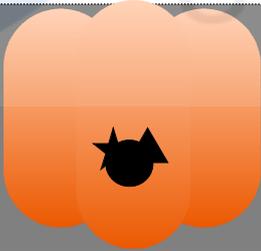
높낮이로 균형을 이루는 장면



(사진 4-12)

무용수가 낮은 자세에서 조명을 받으며
감정적으로 수렴되는 장면

표 4-3. 3장 동선 및 조명

장면	동선 및 조명	조명 플랜	소요 시간
3장		1. 앰버톤의 부드러운 확산광 조명	4분 30초

4.4 4장: 균형의 춤

4.4.1 내용 및 안무의도

「균형의 춤」은 작품의 마지막 장면으로, ‘중용’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이론이나 탐색 단계를 지나, 실제 삶과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표현한다. 무용수들은 앞선 세 장면을 거치며 경험한 혼란, 탐색, 깨달음을 토대로, 이제는 각자의 중심을 내면화한 상태로 무대 위에 선다.

이 장면에서 안무는 절제된 동작과 정적인 에너지 안에서 흐름의 자연스러움을 드러낸다. 무용수들은 서로를 밀거나 끌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 독립성과 공동체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중심을 잡기 위한 갈등이나 불균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의 움직임이 하나의 공동 리듬으로 수렴된다.

특히 공연의 처음과 유사한 동작이 반복되되, 그 해석은 완전히 달라진다. 초반의 불안정한 중심잡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숙련되고 통합된 균형의 움직임이 등장하며, 중용의 미학이 일시적인 조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로 전환된 것이다.

이 장은 철학적 의미뿐 아니라 무용 작품으로서의 형식적 대미를 장식한다. 안무자는 이 장면을 통해 무용수들의 감정, 에너지, 시선, 공간 사용이 모두 ‘무리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성했으며, 이로써 관객에게도 깊은 심리적 안정과 여운을 남기고자 하였다.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균형의 춤」에서는 움직임의 밀도와 리듬이 앞선 장면들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이 장면의 안무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감정의 격변을 배제하고, 부드럽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중용의 실천’을 신체적으로 구현한다. 무용수들은 서로 간의 시선과 호흡을 통해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각자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무대 언어를 만들어낸다.

무용수들이 정면을 향해 서로 나란히 선 채, 동일한 방향성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장면은 공동체적 균형을 상징하며, 각자의 중심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평온한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그림 4-13).

또한 무용수 중 한 명이 중심봉을 손에 가볍게 들고 있으며, 나머지 두 명은 그 주위를 자연스럽게 회전하거나 걷는다. 움직임 사이에는 주도권이 없고, 모든 동작은 타인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중심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함께 유지되는 것임을 나타낸다(그림 4-14).

이 장면의 안무는 빠르거나 극적인 동작 없이도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무엇을 얼마나 표현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절제하며 전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결국 「중심잡기」는 이 장면을 통해, 몸과 마음, 개인과 공동체, 표현과 침묵 사이의 균형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사진 4-13)

평온한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



(사진 4-14)

중심은 관계 속에서 함께 유지되는 것을 표현

4.4.3 음악

「균형의 춤」 장면에서는 2번 트랙이 단독으로 사용되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안정감 있게 이끈다. 이 트랙은 전자음과 잔잔한 자연음이 혼합된 구성으로, 앞선 장면의 긴장감이나 혼돈과는 달리, 차분하고 정제된 사운드 레이어를 제공한다.

음악은 일정한 리듬 없이 흐르듯이 흘러가며, 무용수들의 동작을 규정하기 보다는 감싸듯이 둘러싼다. 이는 마치 정적인 명상이나 깊은 호흡처럼 작용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무용수의 내면에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든다. 강렬한 드럼 비트나 급격한 사운드 전환 없이, 소리의 파형 자체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수렴하는 방식은 중용의 미학을 음악적으로 반영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음악은 감정을 자극하거나 전면에 드러나는 도구가 아니라, 움직임의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배경으로 존재한다. 무용수들의 균형 잡힌 동작, 조화로운 시선, 절제된 에너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전체 작품을 마무리하는 정서적 정결감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2번 트랙은 ‘균형의 춤’이라는 주제에 걸맞은 사운드 구조로, 감정과 움직임, 사유와 실천이 하나로 통합된 무대 공간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4.4.4 조명

「균형의 춤」에서는 전체 무대의 빛이 조화와 평온을 상징하듯 은은하게 펼쳐진다. 조명은 앞선 장면들과 달리 명확한 대비나 플래시 같은 강렬한 표현 없이, 무용수들이 중심을 내면화한 상태에서 서로 조율되는 감정선을 부드럽게 감싸는 역할을 한다. 색상은 주로 따뜻한 흰색 혹은 미세하게 가미된 황색 톤을 사용하여, 차가운 긴장 대신 따뜻한 수용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무대 전체에 퍼지는 연한 광선이 세 무용수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며, 정적인 공간 안에 시간의 흐름을 암시한다. 무용수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조명과 하나가 되며, 몸의 움직임이 빛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선을 이끈다(그림 4-15).

무용수들이 조명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조명이 무용수들의 중심 감각에 따라 흐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 장면에서의 조명은 움직임을 강조하기보다 그 안의 정서를 드러내는 조형적 요소로 기능하며, 작품 전체의 감정과 메시지를 맺는 데 정서적 정결함을 더한다(그림 4-16).

이처럼 마지막 장면의 조명은 단순한 시각 연출을 넘어, ‘균형’이라는 주제를

감각적으로 구현하는 무대적 장치로 작용하며, 무용수와 무대, 관객의 감각까지도 조화 속에 수렴시킨다.



(사진 4-15)

몸의 움직임이 빛과의 상호작용



(사진 4-16)

정서를 드러내는 조형적 요소

표 4-4. 4장 동선 및 조명

장면	동선 및 조명	조명 플랜	소요 시간
4장		1. 라이트 인과 암전을 반복하며 무용수에게 빛이 이동하는 듯한 모습을 표현	4분
		2. 다시 넓어지는 조명	
		3. 처음과 같은 모습과 같은 빛의 조명	

V. 결론

본 논문은 유교 철학의 핵심 개념인 중용(中庸)을 현대무용이라는 예술 매체를 통해 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된 무용 작품 「중심잡기」를 분석함으로써, 철학과 예술의 통합적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오늘날 개인은 정보의 과잉, 감정의 소외, 관계의 불균형이라는 복합적 현실 속에서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중용’이라는 고전적 개념은 단순한 윤리적 처방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중심을 되찾고자 하는 예술적 탐색의 좌표로 작용할 수 있다.

작품 「중심잡기」는 총 네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중용의 철학적 과정인 ‘혼돈 - 탐색 - 깨달음 - 균형’을 무용 언어로 풀어낸 구조를 지닌다. 1장 「혼돈의 시작」에서는 감정과 관계의 극단적 흔들림을, 2장 「중용의 탐색」에서는 그 속에서 중심을 찾고자 하는 몸의 시도와 갈등을 보여주었다. 3장 「중용의 깨달음」은 중심 감각의 회복과 감정의 수용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무용수의 신체는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내면의 중심을 표현하였다. 마지막 4장 「균형의 춤」은 이 모든 과정을 내면화한 후, 절제와 조화 속에서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안무자의 철학적 사유와 무용수의 신체적 실천이 결합된 결과물로, 특히 ‘중심을 잡는다’는 단일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움직임, 조명, 의상, 소품, 음악 등의 모든 무대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다. 긴 막대기라는 상징적 소품은 외부의 기준에 의해 흔들리는 자아와 그 중심을 되찾기 위한 반복적 시도를 상징하며, 무용수는 그 움직임을 통해 중심의 철학을 직접 구현하였다.

또한 본 작품은 중용의 개념이 정적인 ‘중간’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조절,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유연한 실천이라는 점을 예술적으로 제시한다. 각 장면의 조명과 음악, 무대 동선은 철학적 메시지를 정서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관객 역시 작품을 통해 ‘지나침’과 ‘부족함’을 경계하며 삶의 중심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된다.

무용 작품 「중심잡기」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단순히 철학 개념을 예술로 전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움직임을 통해 사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철학이 머릿속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감각임을 절실히 느꼈으며, 무용은 그것을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인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체감하였다. 이 과정은 무용수와 안무자 모두에게 중용의 정신을 ‘살아내는’ 예술적 수련의 시간이었으며, 이는 본 창작의 내적 깊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 창작 과정은 동시에 고통과 성찰의 연속이기도 했으며, 철학적 개념을 어떻게 무대 언어로 번역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사유의 깊이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이 작품은 무용교육 및 감정훈련 프로그램, 또는 공동체 예술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닌다. 감정 조절, 자기 성찰, 관계 조율 등 중용이 지닌 철학적 요소들은 단지 예술 표현을 넘어 치유적이고 교육적인 기능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 및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용을 기반으로 한 감정 훈련 워크숍,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용치료 콘텐츠 등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예술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고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비전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동양 고전철학의 개념이 현대 예술 창작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무용이 단순한 신체 표현을 넘어 철학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술적 실천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앞으로의 무용 창작에 있어 개념 기반 창작의 가능성과 방법론에 대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을 신체화하는 창작 작업은 단지 안무의 방식이 아니라 예술가의 삶의 태도와 깊이 있는 사유를 요구하는 과정이며, 『중심잡기』는 그러한 철학적 실천의 첫걸음이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예술과 철학의 융합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시도된다면, 무용은 더욱 의미 있는 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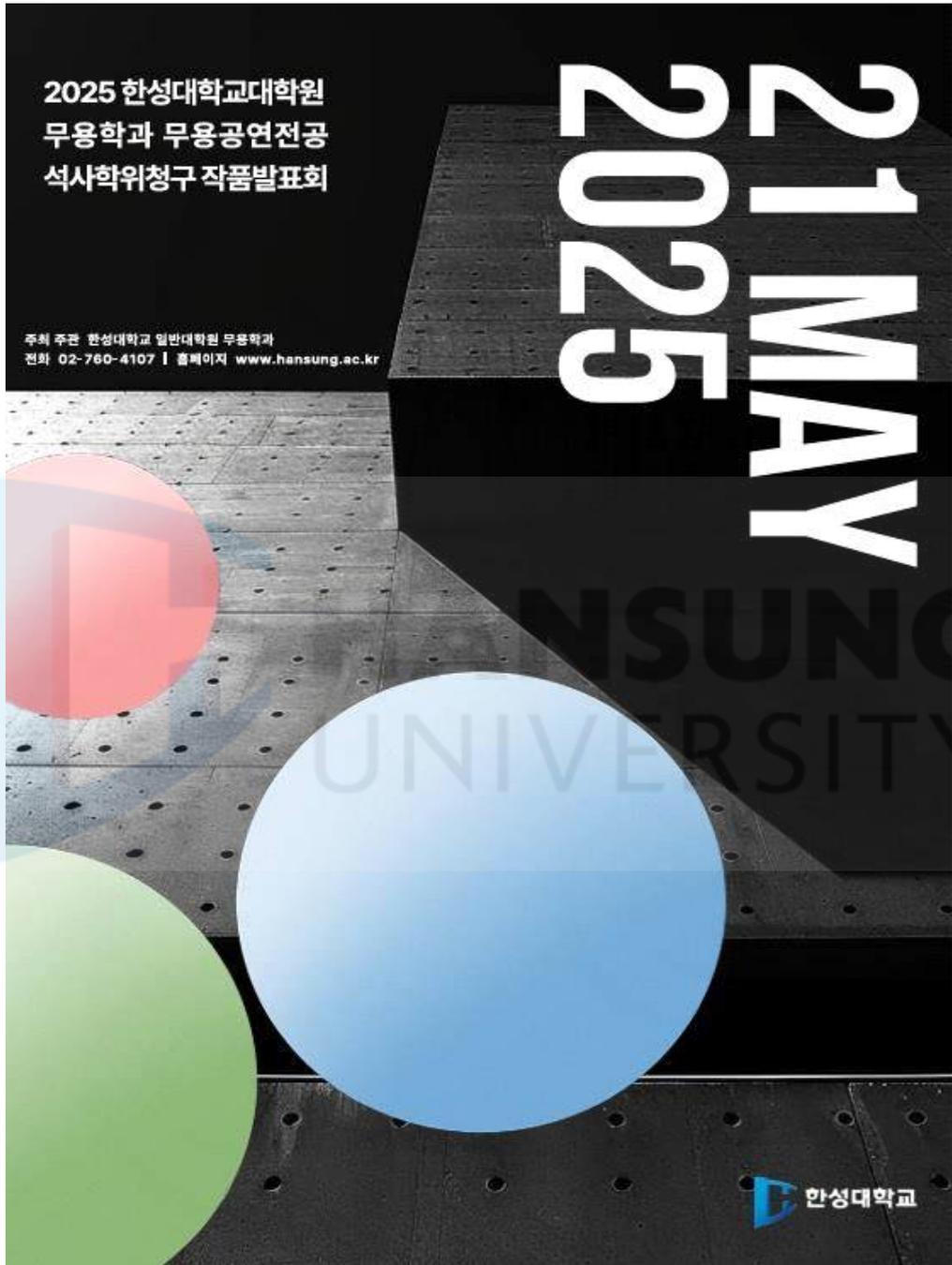
- 공자, (2008), 『중용』, 김학주 역주, 을유문화사, p.14.
- 주희, (2011), 『중용장구집주』, 정인재 역, 예문서원, p.65.
- 맹자, (2007), 『맹자』, 신동준 역주, 을유문화사, p.84, 222.
- 아리스토텔레스, (2009), 『니코마코스 윤리학』, 천병희 역, 숲, p.91.
- 김상환, (2013),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개념과 윤리학」, 『철학연구』 제 100집, 철학연구회, pp.85-110 (인용: p.88).
- 조광제, (2006), 『유학과 마음공부』, 사계절, p.109.
- 김경일, (2022), 『지혜의 심리학』, 진성북스, p.157.
- 김미숙, (2013), 『무용미학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p.102.
- 양선아, (2020), 「현대무용에서의 신체 균형의 미학」, 『한국무용연구』 제 25집, 한국무용연구학회, pp.45-62 (인용: p.47).
- 김혜윤, (2022), 『내면의 거리』 공연 프로그램 노트

부 록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중심잡기
일 시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19시 30분
장 소	M극장
안무자	조한진
출연진	조한진, 성주현, 강민지
무대감독	손성현
조명감독	강현석
영상감독	효엽

팜플렛



중심잡기



안무 및 출연 조한진



출연 성주현



강민지



오늘날 현대사회는 극단으로 치달고 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욕망,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은 인간,
감정의 폭발과 즉각적인 반응이 미덕이 되어버린 시대.
우리는 과잉과 결핍이 공존하는 이 세계에서 진정한 중심을 찾고 있는가?

이 작품은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中庸)'의 철학을 바탕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잃고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
SNS와 미디어가 만들어낸 감정적 극단, 끝없는 경쟁과 소비가 초래한 공허함.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공연은 처음 혼돈과 극단 속에서 출발하여 점차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지나침도 부족함도 아닌 "조화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

1. 혼돈의 시작 (Opening: 불균형의 세계)

2. 중용의 탐색 (Seeking Balance)

3. 중용의 깨달음 (The Realization of Balance)

4. 균형의 춤 (Dance of Equilibrium)

ABSTRACT

Analysis of dance work 「Keeping balance」

Cho, Han-jin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convey a message on the restoration of the balance of emotions and relationships of modern people by taking the core concept of Confucian philosophy, 庸, as the theme of contemporary dance creation. Modern society is an era of confusion in which excessive information, excessive competition, and extreme expression of emotions are common, and individuals are living a life of loss and shaking in constant stimulation. Therefore, this thesis contains an artistic attempt to escape from this flow of chaos and seek the meaning of a harmonious life through the creative performance 「Centralization」 based on Jung-yong's philosophy.

「Centralizing」 is an exploration of a movement to find a balance between 過 and non-payment in human relations. The work consists of a total of four scenes, and depicts a journey from a world of chaos to a

dance of balance, gradually realizing moderation.

This study artistically explored the process of converting philosophical concepts into body languag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case analysis, and choreography experiments.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moderation were interpreted based on classical philosophical books and modern sociological theories such as "moderation" and Aristotle's "Nikomakos Ethics," and choreographed through case analysis of contemporary dance masters such as Pina Bausch, MERS Cunningham, and Ohad Naharin. In addit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dancers, we experimented with improvised movements and emotional expressions, and explored how the philosophy of moderation can be revealed in movements.

This study shows that dance is an artistic practice that can present philosophical concepts and directions of life beyond simple body expressions. This paper, which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classical concept of moderation is still valid in the emotional confusion and excess of modern society and can be reinterpreted through art, proposes a new direction for dance creation.

【Keywords】 moderation, Confucian philosophy, balance, emotional control, harmony